

## 어느 가정의 모범



서 수열 자매

1985년 12월 14일, 살을 에이는 북풍에 눈보라마저 날리는 겨울밤 우리는 12월 15일의 서울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경하였다. 그 밤에, 함께 간 이자매와 나는 어느 말일성도 형제님 댁으로 안내되었다.

당시에 나는 교회 활동 참석 상태가 미온적이었다. 그러던 내가, 교회 회원이 된지 오래된 훌륭한 형제님 댁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큰 호기심이 생겼다.

그 댁의 자매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선반 위에 준비하게 정돈되어 놓여진 병들을 자주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저게 뭘까?”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우리는 우리를 초대한 가정의 가장에게 물었다. “형제님, 저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많은 병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은, 그것들은 병조림으로써 가정 비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해 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선반 위에는 깻잎, 복숭아, 토마토, 오이 등이 병속에 가득 들어 있었으며 이는 비상시를 대비한 교회 예언자의 말씀에 따른 준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교회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교회 활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회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사는 말일성도의 가정을 방문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나는 그날 밤의 따뜻한 환대와 교회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그 가정의 분위기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비로소 말일성도들의 위대한 일면을 보고,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성전 헌납식을 마치고 하향한 후 내게는 매월 성도의 벗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내가 서울에서 일박을 했던 그 말일성도 가정의 가장이 보내 주는 것이었다. 나는 보내 주신 분의 친절함과 정성을 생각하여 성도의 벗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그 책속의 기사는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외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내적인 모습, 즉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게 되었으며 나는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속해 있는 대천 지부에서 말일성도 자매로서 최선을 다해 신권 지도자들을 도우려고 애썼으며, 나는 교리와 성약 123편 17절에 있는 말씀인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있는 힘을 다하여 만사를 기쁨으로 행하자. 그리하여 확고부동한 신념으로써 견디어 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자”를 생활 목표로 삼았다.

수십 개의 병조림 병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그 추운 겨울밤 이래로 나의 결심은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어느 주일 날, 나는 스테이크 부장님의 전화를 받고 청주로 갔으며 그 곳에서 유난히도 눈이 빛나는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 형제와 데이트를 시작했으며, 어느 날 그 형제와 나는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끔 동기를 주었던 서울에 계신 형제님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신록의 계절 5월 5일에 그 형제님께서 지켜 보시는 가운데 서울 성전에서 결혼하였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말은 내가 복음 안에서 만사를 기쁨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이처럼 큰 축복을 준 그 가정과, 그 겨울밤 선반 위의 병조림 병을 보고, 느끼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주: 서 수열 자매는 현재 천안 지부 청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91기 수료

(1988. 6. 20~29)

최 조정 장로(중앙 와드) 부산 선교부  
이 해규 장로(태백 지부) 부산 선교부  
강 영미 자매(봉천 와드) 부산 선교부  
김 진서 자매(봉천 와드) 부산 선교부  
임 현주 자매(영등포 지부) 부산 선교부  
임 원빈 장로(간석 지부) 대전 선교부  
안 경찬 장로(삼청 와드) 대전 선교부  
박 중언 장로(중앙 농아 지부) 대전 선교부  
배 효숙 자매(마산 와드) 대전 선교부  
길 희근 장로(수성 와드) 서울 선교부

문 용식 장로(목포 와드) 서울 선교부  
이 재근 장로(마산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정 병철 장로(수성 와드) 서울 서 선교부  
박 일숙 자매(여수 와드) 서울 서 선교부

훈련을 마친 91기 선교사들





##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남 보성군 겸백 북 국민학교에서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원래 대회장은 보성군 울어면 야영장이었으나 당일날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겸백 북 국민학교로 대회장을 옮기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좌에 앉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느냐”(엘 60:21)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대회는 비록 야영은 아니었지만 청소년 각자가 취사를 담당했으며 청소년 회장단이 모임을 이끌어 나갔다.

모임을 통해 서로가 도우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특히 사탄과 천사를 구분하여 해의 왕국에 이르게 되는 ‘선택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훌륭한 간증을 얻는 모습들이었다. \*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



고 김 호직 박사 추도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회원들

## 고 김 호직 박사 추도식

8월 30일, 북스테이크 녹번 와드에서 고 김 호직 박사의 30주기 추도식이 있었다. 스테이크 부장, 선교 부장 등 교회의 많은 지도자와 성도들, 그리고 가족과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평중 스테이크 부장의 고인의 약력 소개로 시작되었다. 모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고인의 훌륭한 성품과 인자하심을 회상하며,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는 그분의 겸손과 사랑의 영을 느낄 수 있었다.

정 윤 형제와 신 호범 서울 선교부장은 고인이 한국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업적과 신앙의 귀감을 기리는 말씀을 했다.

고인은 교회의 부름에 대한 봉사를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김 박사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여 주었으며, 그 어려웠던 시기에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지주가 되었다. 그분은 복음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린 선구자였다. 고인의 추도식은, 이제 그 뒤를 이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인이 기대하는 바와,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라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했다.

또한 장남인 김 신환 형제의 독창이 모임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

성도의 벗 기자 정 희순 자매

## 서울 강서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1988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서포면 여의포리 팔봉산 기슭에서 강서 스테이크 10개 와드/지부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하게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복잡한 도심지를 떠나와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노니는 맑은 강물을 바라본 참 여자들에게서 가슴 후련한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원하노니, 너희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온유하라. 쉽게 권고대로 행하라. 인내심을 가지며 오래 참으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라. 세상의 것이거나 영적인 것이나 필요한 대로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얻게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라.” 엘마서 7장 23절의 말씀이 대회 주제였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3박 4일의 일정 동안 청소년들은 극기와 협동심을 배웠고 우정과 간증, 그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일상 생활에 신선한 활력소를 얻었다.\*

기사 제공 : 장 동민 기자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92기 수료

(1988. 7. 18~27)

김 재광 장로(오산 지부) 부산 선교부  
 소 정순 자매(간석 지부) 부산 선교부  
 전 정아 자매(봉천 와드) 부산 선교부  
 연 영희 자매(담동 와드) 부산 선교부  
 김 송자 자매(태능 와드) 부산 선교부  
 하 태영 장로(면목 와드) 대전 선교부  
 조 덕환 장로(태백 지부) 대전 선교부  
 윤 미숙 자매(도봉 와드) 대전 선교부  
 오 현옥 자매(도봉 와드) 대전 선교부  
 황 경림 자매(도봉 와드) 대전 선교부  
 이 혜선 자매(불광 와드) 대전 선교부  
 구 연향 자매(원주 지부) 대전 선교부  
 이 인후 장로(경주 지부) 서울 선교부  
 김 형훈 장로(서귀포 지부) 서울 선교부  
 장 일선 자매(운천 와드) 서울 선교부  
 김 성진 자매(운천 와드) 서울 선교부

훈련을 마치고 성전 앞에 모인 92기 선교사들



## 슬로버 성전장 송별 노변의 밤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신당 와드에서는 슬로버 성전장 송별 노변의 밤이 있었다.

지역대표, 선교부장들을 비롯하여 각 스테이크 부장들, 교회 역원들과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신임 서울 선교부 신 노범 선교부장의 말씀에 이어 슬로버 성전장 부처의 말씀이 있었다.

슬로버 성전장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성전을 위해서 수고한 허 채 형제와 고인이 된 박 재암 형제의 노고를 치하 하였으며, 전 중철 성전 사무장과 그 외의 직원들, 또한 메이트론 보조, 성전 선교사, 의식 봉사자들, 함께 일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성전 사업의 중요성과 거기서 얻은 간증을 생생하게 들려 주었다.

서울 성전의 초대 성전장으로서 3년 동안의 성전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감을 못내 아쉬워하는 인상이 노부부의 얼굴에 역력했다.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성도들과 석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슬로버 전 성전장 부부는 9월 5일 김포 공항에서 약 30여 명의 환송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본국으로 귀환했다.\*

말씀하는 슬로버 성전장



## 3개 스테이크 합동 청년 대회

지난 8월 9일부터 3박 4일간 동·동대문·영동 3개 스테이크가 합동 청년 대회를 가졌다. 강릉 지방부도 함께 참석했다. 장소는 아름다운 산수와 아리랑으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이었다.

도착한 첫 날은 레크레이션과 대대별 모임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다음날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세미나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 순서에서는 신학원의 최 동일 교수와 서 회철 교수가 함께 했다.

이 날의 특별 순서로 인간 문화제인

최 봉출 씨를 초청하여 직접 우리 민요인 정선 아리랑을 들었다.

세째날에는 박 병규 교수의 종교 교육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동적인 활동으로 운동회가 열렸는데 대대의 명예를 걸고 열띤 응원과 함께 모두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경기 종목은 2인 삼각, 닭싸움, 늑대 사냥, 축구 등이었는데 이중 가장 열리게 펼쳐진 것은 늑대 사냥이었다.

이날밤, 청년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무도회 또한 밤하늘의 별들과 조화된 아름다운 순서였다.

춧불의식이 행해지고 시 낭송을 하면서, 말일성도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 제공 : 박 영미 기자



## 영동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성료

제 6회 영동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가 모사이야서 2장 17절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함이라"라는 봉사의 말씀을 주제로 강원도 홍천의 팔봉산 기슭, 야영장에서 88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개최되었다.

김택우 스테이크 부장은 청소년 대회에 즈음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대 자연의 속성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이니...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나마 인식할 수 있는 뜻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김만주 부장의 대회 선언으로 시작된 일정은 참여한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수려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맛보면서 복음과 질서 안에서 신앙과 우정을 키울 수 있었다. 4일동안 청소년들은 팔봉산 등반, 봉사에 대한 대별 토론, 소년대 활동에 대한 베이스 교육, 피기전, 캠프파이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체 생활에서 필요한 단결심과 인내와 의로운 봉사의 중요성을 배웠고, 세미나를 통하여 신권 지도자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듣는 기회도 가졌다.

대회 기간동안 스테이크 역원과 감독단들이 불편한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고, 간증 시간에는 한결같은 말일성도 청소년들로서의 신앙과 사랑과 간증을 함께 나누어 이번 대회의 성공을 확인하였다. \*

기사제공 : 이호상 기자

## '88 하계 청소년 대회



줄을 타고 계곡을 건너는 청소년들

부산 지역 '88 하계 청소년 대회가 부산 자연 공원 야영장에서 개최되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소년 150여 명, 성인 지도자 5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의 주제는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힘차게 나아가자..."(나이 31 : 20)였다.

민해기 스테이크 부장의 대회 선언은 청소년들의 "와"하는 외침과 아울러 시작되었다. 스테이크 부장은 개회사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쾌락적인 추구보다는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희생·봉사하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영적 말씀을 통하여, 마크 에이 피터슨 부산 선교부장은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말일성도 개척자입니다. 김수오랑, 김알지, 박혁거세가 역사 또는 신화속의 시조라 불리워지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족보(family tree)라는 영원한 건지에서 시조가 될 수 있으니, 계보 사업에 충실하십시오"라고 권고하였다.

대회 기간 동안 예절 교육, 선교 사업, 체력 단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별히 "잠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은 복음에서의 쇠막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 미리 설치된 줄을 따라서 대원들이 눈을 감은 채 지나가게 하는

것이였다. 가는 도중에 돌부리에 차이는 대원, 나무에 부딪히는 대원도 보였으나, 결단코 손에서 줄을 놓치지 않았다.

간증회에서 한결같이 지도자에 대한 감사와 순종을 이야기 하였으며, 자기 발견의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왔다.

대회를 마치면서, 우수 대원으로 봉사상에 박태규 형제(수정 와드), 스마일상에 김지희 자매(광안 와드)가 각각 수상했다. \*

기사 제공 : 장미경 기자

## 북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교리와 성약 130편 19절의 말씀을 주제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이기심을 극복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청소년들은 높은 표준과 열성으로,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활동은 더욱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많은 감동을 주었다. 결국, 그 열매는 마지막 날 간증회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간증을 나누게 하였다. \*

기사 제공 : 정희순 기자

천마산 수련장 입구에 모인 청소년들

